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모두말씀

2024. 8. 8. [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주신 학계의 전문가님들,

업계 및 금융당국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보험개혁회의 운영계획

오늘 자리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의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습니다.

일련의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Ⅲ.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보험의 기본은 위험보장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①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pool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하겠습니다.

* 선임 가능 상품대상: (기존) 실손보험 → (개선)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건

②보험산업과 국민이 만나는 점점인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쏠 단계별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 정착지원금 공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GA별 정착지원금 지원총액, 선지급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대리점협회에서 공시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사 공개정보(계약유지율 등)를 확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제도 내실화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③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접수된 보험민원은
금감원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와
단순민원(非분쟁민원)의 협회 이첩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전문성”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④아울러,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로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도입,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 특약 허용,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보 상품 취급 확대 등
보험상품의 혁신과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질병통계 정보 제공방식 효율화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말씀

앞으로, 우리는 보험개혁이라는
변혁의 길을 해쳐나가야 합니다.

보험산업 자체가
영업을 개척하는 아웃바운드 산업인바,

오늘 모이신 분들이
보험 개혁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해 주시고
보험업계도 합심하여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